

‘저작권 전문 경찰’로 K-콘텐츠 침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 문체부와 경찰청,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경찰’ 추가 지정 운영
- 저작권 직무교육을 이수한 수사관이 상담부터 수사까지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9월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풍부한 저작권 수사 경험을 갖춘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선발

문체부와 경찰청은 '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다. 그러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두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 부산, 대구)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로 새롭게 선발된 수사관들은 지난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 상담 등 촘촘히 관리

‘저작권 전문 경찰’은 앞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정·운영되는 만큼 빈틈없이 저작권 수사를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권역별 저작권 전문경찰]

권역별		소 속	상담 전화
신규 지정	충청권	대전광역시 경찰청	042-609-2769
	호남권	광주광역시 경찰청	062-609-2968
	강원권	강원도 경찰청	033-248-0259
	제주권	제주도 경찰청	064-798-3569
기존 운영	수도권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서울)	02-725-1760, 1767, 1768
	영남권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부산)	051-507-8702, 8703, 8704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대구)	053-428-9793, 9794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과 경찰청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책임자	과장	윤용한 (044-203-2491)
		담당자	사무관	한승호 (044-203-2496)
담당 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책임자	과장	이병귀 (02-3150-1605)
		담당자	경정	이여정 (02-3150-1658)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정책브리핑

